

# B-C油의 장래는 밝다

**한때** 石炭·원자력등 他에너지에 밀려 수요가 줄어들던 B-C油가 최근 유가하락에 힘입어 다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3년간 重質 燃料油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때는 최대 소비유종이었던 B-C油가 최소 수요유종으로 전락한 것이다. 세계 石油 가격의 상승으로 연료대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중질 燃料油는 보다 저렴한 연료인 石炭과 핵발전 및 다양한 절약방법에 의해 그 수요가 크게 퇴조 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1979년부터 특히 두드러졌다. 이 기간중의 경기침체와 높은 석유가격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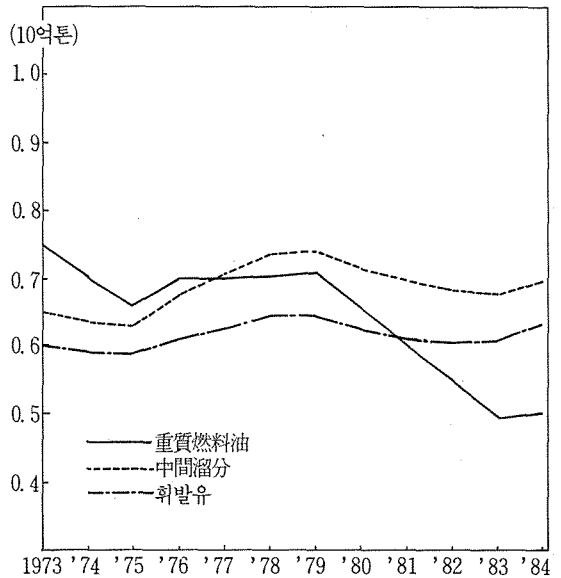
그러나 이제 상황은 역전한 것 같다. 최근 油價의 급격한 하락으로 重質 燃料油 가격은 石炭과 천연가스에 대해 경쟁적인 위치를 되찾았으며 重質油 수요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重質 燃料油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는 다음 그림을 보면 명확해진다.

1973년부터 1984년에 걸쳐 자유세계의 重質油 소비는 1/3이 줄어 440만 B/D나 감소되었으며, 선진공업국가만 보면 510만 B/D나 줄었다. 輕質油 소비가 1973년 이후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重質油의 수요감소가 두드러진다.

重質 燃料油 시장은 7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감소추세는 이란 革命과 이란-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石油 가격이 세배나 급등하게 된 1979-83년의 기간중 특히 현저했다. 이 시기에 重質油 수요가 크게 줄어들 때에는 우연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그 이전에 착수된 여

自由世界の 石油수요추이



(자료) BP통계

러가지 석유소비감축 프로젝트가 이 기간중에 성과를 보게 된 이유도 수요감소에 일조를 했기 때문이다. 石油의 石炭 및 천연가스로의 전환은 70년대에 본격화되어 80년대초에 가속되었다. 그러나 非石油부문에서 가장 크게 신장한 것은 原子力이라고 할 수 있다. 1973년에 OECD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의 비중은 4.5%에 불과했으나, 1979년

에는 10.9%로 늘어났으며, 1984년에는 17.9%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걸프지역의 여러가지 사건으로 촉발된 원유가격의 급등은 石油소비 감축 노력에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輕質油의 수요대체는 제한적이다. 특히 배터리로 구동되는 자동차가 개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자동차용 연료유는 더욱 그러하다. 중질유분도 가스의 개발로 위협을 받고 있지만, 비교적 경쟁재화가 없는 편이다. 그러나 重質 연료유의 경우는 代替財가 다양하고도 매력적이다. 증기발생에 있어서도 석탄은 과거 수년간 훨씬 저렴하고 발전시설의 간단한 설치나 공정의 일부 변경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전력수요가 장기적으로 급세기말까지 연간 6~7%씩 성장한 것으로 예측하였고, 또한 石油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에, 각국은 석탄을 연료로 하는 전력생산량을 상당히 증대시켰다. 1971년에서 81년 사이에 석유가격이 3배로 뛰고 脫石油 정책이 노골화되자 OECD 전력 생산에서 石油의 역할은 1973년의 25.7%에서 1979년의 19.7%로, 다시 1984년에 10.1%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공급능력의 과잉으로 공공부문에서 융통성이 커진 것도 있지만, 규제와 자본지출의 면에서 보다 자유스러운 산업 부문은 연료전환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산업 부문의 연료 전환 능력은 OECD통계를 보면 명백해진다. 70년대 초반에 변화가 없었던 것에 비해 1979-84년간에 石油 수요는 격감했다. 1973년부터 11년동안 OECD 산업 부문에 에너지 수요는 13%가 줄어들어 8억8천600만 TOE가 되었다. 이 지역의 GNP는 같은 기간동안에 정상개념으로 28.5%가 증가했으므로 에너지 소비감소는 연료사용의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石油수요만 얘기하자면 그중에 상당한 부분이 重質 연료유로서 산업수요는 1970년대를 통하여 약 3억6천600만 TOE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1984년에 들어서서 石油수요는 거의 3분의1이 줄어들어 2억5천200만 TOE가 됨으로써 에너지 수요중 石油의 비중은 28.4%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수요 감소는 거의 전량이 石油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석탄과 가스 소비가 약간 줄어든 것은 전력소비 증가로 상쇄되고 있다.

사우디의 네트백 가격결정 방식 채택으로 출발된 原油가격의 급락 때문에 重質 연료는 수요반등의 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작년말 原油價가 붕괴될 조짐을 보였지

만, 아직도 배럴당 20달러를 웃돌고 있을 무렵, 체이스 맨 하탄 은행은 발전용 연료로서 石油가 석탄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배럴당 13.5-15달러 수준까지 떨어져야 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당시 이러한 수준으로의 하락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重質 연료유 가격은 실제로 엄청난 수준까지 하락하여 Btu기준으로 가스를 위협하고 석탄에 대해서도 경쟁적으로 되었다. 4월 중순에는 美國내 重質 연료유 스파트 가격은 배럴당 1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고 유럽에서는 석탄과 등가수준이라고 하는 톤당 80-90달러보다 훨씬 아래인 60달러까지 하락했다.

현재까지는 重質 연료유 가격이 하락하므로 인해서 새로운 구매를 촉진한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금년초 한 美國기업의 증역은 연료유 가격이 배럴당 14달러로 떨어지면 石油로 전환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금년초 美國 석유회社は 2월에 重質 연료유 수요가 12만B/D 증가한 것은 산업부문에서의 연료 전환 때문이라고 밝힌바 있다. 石油로 전환하는 양상이 간간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 추세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 국한될 것이다. 현상황으로서는 石油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요증가는 50만-100만B/D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IEA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1986년의 石油수요는 당초 예상보다 30만B/D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나 이보다 훨씬 증가 추세가 클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그러나, 石油가격이 다른 연료에 비해서 등가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石油의 비중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현재로서는 GNP 성장률 증가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重質 연료유 수요증가도 당분간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전력수요증가율은 현시점에서 다시 추정하여 보건데 1.5-3%수준에 머무를 것이지만, 성장추세가 가속화되면 전력수요도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石油수요 증가는 다른 연료수요를 잠식하는 전제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산유국은 석유가격을 타 에너지에 대해서 경쟁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산유국이 石油수요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重質 연료유 수요증가를 추진하는데 있다. 중질연료유 수요는 앞으로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며 거기에는 정제시설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제약요인일 것이다. □(Petroleum Economist)